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예방과 기독교상담

강 경 미*

국문초록

현재 우리사회에 다문화 가정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주여성들의 이혼 및 가정폭력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08년 가정폭력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의 부부간 폭력발생률은 47.7%로 한국인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 40.3%보다 7.4%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에 의한 심각한 폭력은 다문화가정이 한국인 가정에 비해 3.5배 높아서 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이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은 혼인관계 파국과 함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되면서 삶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예방대책이 시급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교회나 기독교기관들도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내담자로 하여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하도록 조력하는 것이 근본 목적인 기독교상담은 다문화 가정상담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서 한국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으로 기독교 상담을 적용, 다문화 가정의 기독교 신앙 확립 및 이주여성들의 보호 및 치유를 위한 상담이론들을 고찰해서 실제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다문화상담을 위한 기독교상담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구체적인 현장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심단어 :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예방, 기독교상담

• 논문 투고일: 2011년 10월 15일

• 게재 확정일: 2011년 11월 8일

*그리스도대학교

• 논문 수정일: 2011년 10월 28일

I. 여는 글

1980년대부터 한국의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유입되는 이주근로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단순노동 목적의 이주에서 시작된 외국인 유입이 결혼이주의 형식으로 변화하였고 또한 지지체를 중심으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현재는 농촌지역 가구의 약 25%, 즉 네 가구 중 한가구가 외국인 여성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실정으로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있다.¹⁾ 이와 함께 국제결혼중개업이 번성해서 대상국가도 중국에서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확대되고 결혼이 산업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동남아시아 국가출신이며, 결혼의 순수한 목적보다는 경제적 이윤이 우선으로 무조건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국제결혼으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한국사회와 가족문화에 대한 적응문제, 자녀양육문제, 이혼, 가출 및 가정폭력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유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부부간의 폭력이나 가족 간에 발생하는 다문화가정의 폭력문제는 결혼의 위기 및 파혼, 가정해체 등의 위험뿐만 아니라 결혼 이주여성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면서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에 해당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을 돕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연구와 함께 이에 따른 보호정책 및 대책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국내 적응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문제별로 구체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이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지원 대책』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06), 4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다문화가정의 폭력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취약한 입지에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적, 사회적 보호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다문화가정의 폭력피해여성들의 문제를 기독교상담 입장에서 조명하여 다문화 가정의 기독교신앙 확립 및 이주여성들의 보호 및 치유를 위한 상담이론들을 고찰해서 대책과 예방에 관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II. 펴는 글

1. 한국의 다문화 가정의 특성과 문제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특성과 문제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다문화'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문화는 '다인종, 다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와 국가에서 문화의 중심이 되는 주류문화에 대한 하위개념'으로 위계관계, 또는 다양성의 존중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한국은 다수의 이주노동자 입국과 함께 국제결혼의 급증으로 다양한 국가의 문화들이 한국사회 전반에 유입되면서 '다양한 민족의 문화'의 개념으로 다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의 개념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국내 적응과 처우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가 2005년부터 사용되어 왔던 '다문화'라는 개념에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정책논의의 편의를 위해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를 채택해서 사용하게 되었다.²⁾ 이와 같이 현재 한국의 다문화가정은 국내 체류 외국인노동자들과 농촌 미혼남의 결혼증가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국제결혼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문제들이 더 많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다

2) 안경식,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서울: 학지사, 2008), 95.

문화가정의 안정성은 취약한 편이다.

1) 다문화가정의 특성

‘다문화가정’이란 국제결혼 등을 통해 서로 다른 인종의 상대를 만나 결혼한 가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개념에는 가족 내 구성원의 인종 간 차별성과 함께 한 가정 내에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난다는 특징으로 단순히 결혼 당사자들만을 의미하는 ‘국제결혼’의 개념보다는 비교적 광범위하고 절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³⁾

한국의 다문화가정은 지난 5년간 약 3배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08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남성 중에 8%가 외국여성과 결혼했으며, 특히 농어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경우 38%가 외국여성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⁴⁾ 이와 같이 한국의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2007년 기준으로 87.9%가 결혼이주여성들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이들 중 89.6%가 중국 및 동남아국가의 여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개발국가 출신이다. 또한 한국에서 국제결혼의 주요 수요자는 농촌남성이고, 최근에는 한국사회의 높은 이혼율과 함께 재혼남성도 국제결혼 수요자에 포함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결혼이주여성들과 한국인 남편과의 연령차이가 비교적 큰 편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인 남편과 17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따라서 동남아 결혼이주여성들은 ‘매매혼’ 형태의 인권침해적인 결혼과정과 함께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가족생활 및 사회문화적 환경차이로 인해 생활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배우자인 한국남성들 역시 농촌출신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편이며, 다문화가정의 대다수가 월평균 가계소득이 100~200만원 미만으로 절

3) 김범수 외, 『다문화사회복지론』 (경기: 양서원, 2007), 84.

4) 여성가족부, 『2007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서울: 보건사회연구원, 2008), 16.

5) 김혜순, “결혼이주 여성과 한국의 다문화 사회실험-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 42집 2호(2008): 39.

대적 빈곤의 위치에 있다.⁶⁾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에 잠시 머물다 돌아가는 유학생이나 이주노동자들과는 다르게 이들은 자녀를 출산해서 가정을 이루고 한국에 영구히 정착해야 하는 우리사회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책은 다른 외국인들과는 차별되게 입안해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2) 다문화가정의 문제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여성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적응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이들 중에 상당수가 부부간의 성격적·문화적 차이, 언어장벽, 자녀양육 및 경제적 문제, 가정에서의 역할기대의 차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일반 한국인가정보다 부부 및 가족 간의 갈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⁷⁾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의 이혼율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2007년의 한국의 총 이혼건수 중 외국인 이혼율은 7.1%로 전년도(5.5%)에 대비해서 40.6%의 증가율을 보여 외국인 부부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⁸⁾ 이외에도 현재 우리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동남아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결혼에 대한 정보 및 동기부족과 사회문화적 생활습관의 차이에서 오는 기본적인 문제이외에도 이주로 인한 상실감, 의사소통의 어려움, 저소득의 문제, 시집살이, 심한 가사노동, 남편의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습관(음주, 폭언, 폭력, 도박 등), 높은 연령차와 학력차이, 지나친 간섭과 통제, 가정 내에서의 소외와 무시 등,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비교

6) 김희숙,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 실증연구”(박사학위논문, 군산대학교사법행정대학원, 2010), 63.

7) 변화순 외,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수시과제연구보고서, 2008, 8.

8) 여성가족부, 『2007년 가정이혼실태조사』 (서울: 보건사회연구원, 2008), 9.

적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2. 가정폭력의 개념과 특성

1) 가정폭력의 개념

1997년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¹⁰⁾은 가정폭력에 대해 가정구성원 및 폭력개념의 범위를 광의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은 일단 가정구성원¹¹⁾간의 폭력행위로 규정하며, 협의의 개념인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광의적인 폭력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는 직접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공범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¹²⁾ 따라서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작은 범위 안에서 교육과 훈계의 목적 또는 한사람의 권위와 지휘권의 행사 및 가족 간의 갈등해결의 도구로 소위 합법과 묵인을 가장하여 가족구성원 간에 각종 형태의 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을 의미하며, 형법상의 일반 폭력과는 다른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¹³⁾

또한 가정폭력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family violence’는 한집에 거주

9) 이인경, “상담사례를 통해 본 이주여성의 삶”, 신라대학교여성문제연구소, 「여성연구집」 제18호(2007): 5-10.

10) 가정폭력관련법은 1997년 12월 31일에 ‘가정폭력특례법’으로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 5436호)’이 제정되었고 이와 함께 ‘가정폭력방지법’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5487호)이 공포되고, 다음해인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1) 가정폭력 특례법(제 2조 2항)에서 규정한 가정구성원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사실상 양친관계를 포함하는 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보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이다.

12) 변화순 외,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11.

13) 김운희, “가정폭력범죄의 효과적인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청, 「경찰대학교위 정책과정논문집」 제12호(2002): 1017-1018.

하는 가족이라는 의미에 한정시킴으로써 배우자에 의한 폭력을 정의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폭력의 장소적·인적·가족적 개념을 포함하는 'domestic violence'로 정의하고 있다.¹⁴⁾ 이러한 개념정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의 개념은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형태의 학대방법을 포함하는 가부장적 행태'라는 의미가 강해서 아내학대(wife-abuse), 아내구타(wife-battering), 아내폭행(wife-assault), 배우자 폭력(domestic-violence), 부부폭력(conjugal-violence)등의 용어와 혼용해서 사용된다.¹⁵⁾

2) 가정폭력의 특성

가정폭력은 발생과정과 원인, 사회적 배경에서 일반폭력과는 현저하게 구분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응방법과 법적 조치 및 처벌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가정폭력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가정폭력은 주로 가부장적 사회문화 속에서 발생하며, 특히 성차별을 전제로 하는 사회구조적 성격에 의해 양산되어 왔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성격적으로는 '체계적 범죄'라고 할 수 있다.¹⁶⁾

둘째, 가정폭력은 일반적인 폭력과는 다르게 일회적인 경우보다는 순환성, 반복적으로 자행되며, 대부분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욱 강력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족관계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계속 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와 함께 폭력피해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공포와 불안

14) 김윤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대학원, 2003), 34-35.

15) A. Sherma, "Healing the Wounds If Domestic Violence: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Feminist Therapeutic Interventions with Immigrant and Racially Visible Women who have been Abused," *Violence Against Women* 7, no. 4 (2001): 1406.

16) W. J. Goode, "Force and Violence in the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1971): 102.

등의 심리적 손상은 매우 심각해서 일반 폭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¹⁷⁾ 셋째,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해자,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폭력으로 인지되지 않고 관용·묵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인식은 형사법적 차원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그 예로 일반폭력에 대해서는 피해당사자나 사법기관이 법적으로 강한 조치와 처벌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에,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정 내부의 문제로 인식하고 통제나 조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¹⁸⁾ 이러한 사회문화적 관용태도는 가정폭력의 근절 및 예방의 걸림돌로 작용해서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¹⁹⁾

넷째,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는 가해자가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피해자 또는 자녀가 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신고를 포기하게 되고, 신고를 해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웃이 목격해도 남의 가정사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생각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및 관계기관의 개입을 곤란하게 하고 폭력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²⁰⁾

3.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 현황

1)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 실태

2008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실태 조사 <표 1>에 의하

17) 김희숙,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 실증연구”(박사학위논문, 군산대학교 사법행정대학원, 2010), 38.

18) 김병준,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아내구타와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2000), 15.

19) 김수율, “가정폭력실태와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2006), 8.

20) 김운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50.

면 최근 1년간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발생률은 43.2%로 한국전체 가정폭력 발생률 50.4%보다는 7.2%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인구비율로 비교하면 다문화가정의 폭력발생률이 한국전체 가정폭력 발생률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²¹⁾

〈표 1〉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폭력 발생률 비교

구분	가정폭력 발생률	폭력유형별 가정폭력발생률					(분석 대상수)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성학대	
다문화가정	43.2	39.9	21.3	7.7	13.4	9.1	(38)
한국전체	50.4	46.2	30.7	3.5	16.0	9.6	(8,783)

또한 2008년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에서 통계자료로 제시한 가정폭력 건수를 기초로 다문화 가정의 폭력실태(표 2)를 살펴보면, 총 상담건수 4,272건 중에서 가정폭력이 274건(6.4%)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폭력의 발생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부갈등은 539건(12.3%), 가족갈등 217건(5.0%), 가출 126건(2.9%), 외도가 27건(0.6%)으로 나타났다.²²⁾

〈표 2〉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의 상담내용

상담내용	가정 폭력	가출	외도	가족 갈등	부부 갈등	성폭 력	성매 매	노동	체류	법률	통역	생활 문제	쉼터 요청	기타	
누 계	4,272	274	126	27	217	539	13	2	74	355	465	923	636	79	542

이외에도 다문화가정의 부부간 폭력발생률(표 1)은 47.7%로 한국인 가

21) 여성가족부, 『2007년 가정폭력실태조사』, 26

22) 장명선·이옥경,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 서울 시여성가족재단, 2008), 49.

정(40.3%)보다 7.4%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교적 중(重)한 폭력은 다문화 가정(16.9%)이 한국인가정(4.8%)에 비해 3.5배 정도 높았으며, 또한 경제적 폭력은 한국인 가정보다 3배 정도 높아서 가정폭력의 중요한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²³⁾

〈표3〉 부부간의 폭력유형별 발생률 비교

구분	전체폭력 발생률	부부간 폭력유형별 발생률						
		정서적 폭력	신체적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성학대
			경한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한) 폭력			
다문화가정	47.7	35.6	5.3	16.9	16.9	12.2	20.7	15.7
한국인가정	40.3	33.1	11.1	4.8	11.6	4.1	19.6	10.5

2)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 유형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2009)에서 상담분석을 통해 제시한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형태〈표 4〉를 보면, ‘손발로 구타/목조름’ (83.5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폭언/멸시/협박’ (33.33%), ‘쫓아냄’ (22.33%), ‘생활비 안주는 경제폭력’ (8.50%) ‘물건던짐’ (6.54%), ‘흉기로 위협’ (3.59%), ‘성적학대’ (3.16%), ‘강제낙태’ (2.83%), ‘감금’ (2.72%), ‘흉기로 때림’ (2.18%)의 순으로, 비교적 심각한 성격의 폭력들이 자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⁴⁾

23) 장명선 외, 『폭력피해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9), 36.

24) 장명선 외, 『폭력피해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 58.

〈표4〉가정폭력의 형태

손발로구타·목조름	83.55%	의부증	1.53%
흥기로 위험	3.59%	생활비 주지않음	8.50%
흥기로 때림	2.15%	돈을 요구함	4.25%
물건던짐	6.54%	?아님	22.33%
폭언·멸시·협박	33.31%	감금	2.72%
성적학대	3.16%	외부와 소통차단	1.74%
강제임신	0.16%	아동학대	3.70%
강제낙태	2.83%	기타	6.21%
의처증	2.51%		

3)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 가해자 유형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사〈표 5〉에 의하면 ‘배우자’ (95.58%)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은 ‘시어머니’ (13.40%), ‘시댁형제’ (6.43%), ‘시아버지’ (4.25%) 등, 주로 시댁식구들에 의해 폭력이 자행되었다. 이외에도 ‘동거친척’ (0.87%), ‘자녀’ (0.65%)에 의해서도 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배우자뿐만 아니라 가정 내 다수의 사람들로 부터 폭력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⁵⁾

〈표 5〉 이주여성 가정폭력의 가해자

배우자	전배우자	시어머니	시아버지	동거친척	전처	자녀	시댁형제	기타
98.58%	0.44%	13.40%	4.25%	0.87%	0.22%	0.65%	6.43%	1.74%

4) 가정폭력 발생 시 신고의향 및 신고하지 않는 이유

다문화가정에서 폭력발생 시 경찰 및 관계기관에 신고의향(40.3%)은 한국가정의 평균(60.5%)보다 20%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가정폭력이 외

25) 김희숙,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 실증연구”, 75에서 재인용.

부로 표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폭력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가정과 마찬가지로 대화로 해결희망이 43.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가족이므로 36.2%, 가족 내 문제이기 때문에 13.5%의 순이었다. <표 6 참조>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가정폭력 신고 및 관련법(1366: 부부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번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인지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정폭력 미신고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관련법에 대한 홍보교육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⁶⁾

<표6>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신고 의향 및 신고하지 않는 이유

구분	신고의향		신고하지 않는 이유								
	분석 대상수	비율	가족 이므로	더 확대 받을까봐	대화로 해결 희망	창피 해서	생활비 중단 염려	경찰 비협조	가족 내부 문제	기타	계 (수)
다문화 가정	50	40.3	36.2	0.73	43.0	-	-	-	13.5	-	100
한국 가정	6689	60.5	29.0	0.7	43.4	4.7	0.1	1.5	20.4	0.3	0

4.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발생원인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폭력가해자에 대한 정신병리학적 이론에 근거한 개인적 요인과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한 나라의 사회심리학적, 문화적 이론에 근거한 사회학적 요인이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은 결혼의 특수한 형성과정으로 인한 발생하게 되는 또 다른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26) 정현미, “결혼이민여성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센터법학연구소, 「이화센터법학」창간호(2010): 81.

1) 개인적 요인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발생의 개인적 요인은 가해자 개인의 정신병리적인 소인과 결혼에 대한 개인의 기대격차 등이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자여성들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기대와 현실과의 차이는 결혼생활에 중요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한다.

(1) 폭력가해자(남편)의 정신병리적 문제

가정폭력이 가해자 개인의 병리적인 속성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입장으로 다문화가정의 남편인 가해자의 정신질환이나 공격적 성향 및 성격적 결함, 또는 알코올·마약중독 등에 의해 야기되는 가학적인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의미한다.²⁷⁾ 그 예로 2010년에 발생해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베트남 신부에 대한 살인사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남편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가정폭력의 개인적 요인으로 대표되는 극단적인 사례이다.

또한 가정폭력은 학습 또는 전이되면서 대를 이어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가정폭력이 학습되는 현상으로, 아동이 부모나 가족들이 심리적 갈등과 불만해소 및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되면서 그들이 부모나 성인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²⁸⁾

(2) 결혼에 대한 개인적 동기 및 기대격차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남성과의 결혼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본국에서의 낮은 경제적 여건과 종교(주로 통일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한류에 따른 한국에 대한 호감과 함께 결혼을 통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결혼을 선택하게 된다,

27) M. Mehrotra, "The Social Construction of Wife Abuse: Experience of Asian Indian Women in the United States," *Violence Against Women* 7, no. 2 (2001): 618.

28) Marvin B. Sussman & Suzanne K. Steinmetz,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Englewood Prentice-Hall, 1987), 108.

그러나 농촌지역으로 시집온 여성들은 한국의 열악한 환경에 실망하게 되며, 본국의 도시지역에서 성장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단기간의 결혼결정으로 인한 상대에 대한 정보부족은 결혼 후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이와 함께 부부간의 갈등과 의심을 증폭되면서 가정폭력을 유발하기도 한다.

2) 사회학적 요인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발생의 사회학적 요인은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구조와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 문화적 편견과 차이 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다문화가정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국가적·사회적 인 인식개선 및 정책마련이 요구된다.

(1)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구조문제

일반적으로 남편이 부인이나 가족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며, 이는 남편이 폭력을 자신의 정당한 권리로 인식하는 사회문화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²⁹⁾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지위에 대한 가부장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한국남자의 경우, 결혼이 주여성에 대해 자신이 보호자라는 부적절한 역할성취와 함께 통제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³⁰⁾

(2) 문화적 차이와 언어문제

박선미의 성인남녀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민자들이 차별받는 주요 이유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외모에서 오는 거부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³¹⁾ 이는 한국사회에 존재

29) 김보환,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제4호(1994): 231-233.

30) 임경혜,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 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대학원, 2004), 20-55.

31) 박선미, “성인남녀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사회문화예술대학원, 2011), 56.

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적에 따른 열등과 우월의식의 이중적 태도와 문화적 편견이 다문화가정과 결혼이주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³²⁾ 특히 한국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편견은 결혼 후에도 아내를 무시하고 학대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갈 곳이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무조건 순종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남편과 시댁식구들은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습관들을 배려하기 보다는 동화되기를 강요하고, 때로는 국적과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정 내에서 완전히 무시하고 고립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고립감은 이주여성들의 가출이나 우울증, 자살을 초래하기도 한다.³³⁾ 이외에도 결혼이주여성들의 대다수가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상황에서 결혼하기 때문에 언어장벽으로 인한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부재는 갈등의 누적과 감정의 폭발로 이어지면서 가정폭력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³⁴⁾

(3) 가정의 경제적 요인

결혼이주여성들의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더 나은 한국에 살기 위해’ 또는 ‘본국의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등의 목적으로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또한 동남아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에는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이미 중개료와 결혼비용 등으로 74% 이상이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³⁵⁾ 그리고 여성가족부의(2008)의 『2007년 가정이혼실태조사』에 의하면 국제결혼가정의 52.9%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 수준이었다.³⁶⁾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지원

32) 임경혜,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 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16-19.

33) 박정화, “한국의 다인종 사회 진입에 따른 정치적 함의: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대학원, 2008), 10.

34) 정현미, “결혼이민여성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80.

35) 이명자, “다문화가정 부부갈등 요인과 대책연구”(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인문정보대학원, 2009), 76-77.

36) 여성가족부, 『2007년 가정이혼실태조사』, 12.

로 인해 본국으로의 송금문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면서 부부간의 다툼을 유발하거나 때로는 가정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주결혼 여성 중에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본인이 직접 일을 하면서 이중고를 겪는 경우도 있다.³⁷⁾ 이외에도 결혼 후에 남편이 아내를 불신하고 한국생활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맡기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들이 있다.³⁸⁾

(4) 가정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지부족과 생활자립능력 취약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가정폭력 관련법이나 신고방법, 피신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편이며, 더 나아가 남편이 보호자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통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도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은 법적, 사회적, 언어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으로 학대관계를 청산하고 독립적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폭력의 대응방법으로 대화거부 및 양육과 가사일 거부, 가출 등의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이는 가정폭력을 유발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³⁹⁾

4. 다문화 가정의 폭력대책과 예방

세계적으로 다민족·다문화사회가 확대되면서 한국도 예외가 아닌 상황에서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체류방식과 추방의 문제만을 놓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로 통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마련과 대책이 요구되

37) 이은정, “가정폭력피해여성의 거취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2006), 9-11.

38) 김오남, “결혼이민여성과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개입”, 한국사회복지학회, 「사회복지」 제175호(2007): 26.

39) Mehrotra, “The Social Construction of Wife Abuse: Experience of Asian Indian Women in the United States,” 621.

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주민들은 법적 지위문제와 경제적 문제, 인권침해 문제, 인종적·문화적 차별문제, 국내 적응문제, 아동양육문제 등, 생존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의 다문화 가정은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잘못된 결혼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본적이고 특수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 중에는 다문화가정 내 갈등이 증폭되면서 발생하는 가정폭력문제가 있으며, 이는 피해자인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개인적인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권적 보호차원에서 사회적으로 개입하여 다문화가정의 폭력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⁴⁰⁾

특히 가정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관념이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는 가정폭력에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간섭이라는 의미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 예로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했을 때 경찰의 태도는 66.4%가 “법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고소하라(38.4%)” 또는 “집안일이니 잘 해결하라(28%)”고 했으며, 3.3%는 즉시 출동하지 않거나 아예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⁴¹⁾ 그러나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이며, 또한 사회 모든 범죄의 뿌리로 반드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또한 자체적 해결능력이 없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가정폭력을 가정 내에서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들의 희생을 묵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국가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가정폭력 예방과 보호, 대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⁴²⁾

먼저 제도적 방안마련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첫째,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함께 특히 다문화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에 관심을

40) 김희숙,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 실증연구”, 80-81.

41) 김운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92.

42) 이수정 외, “다문화사회의 이주여성에 관한 연구: 범죄피해에 대한 취약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32호(2008): 231-233.

가지고 관련 정책집행자 및 유관기관들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의식개선을 위한 사전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 가정폭력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성 강화로, 센터에 대한 확대 및 홍보를 통해 폭력피해 이주여성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현재 운영되고 다문화기관이나 센터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부서를 새로 마련해서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현재 난립해 있는 국제결혼업체에 대한 제도와 운영방안을 재정비하고 상업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⁴³⁾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⁴⁴⁾으로는 첫째, 가정폭력관련 기관들의 통합적 기능을 모색해서 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하고 유관기관들과 연계해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다문화 가정 내에 폭력이 발생했을 때에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경찰의 초동개입 및 조치에 대한 가정폭력처벌법의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결혼이민자들의 쉽게 귀화할 수 있도록 국적법상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의 기간과 요건, 절차가 완화되어야 한다. 넷째, 이주여성이 이혼하였을 때 즉시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이주여성이 이혼소송 및 양육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보장과 취업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여섯째, 이주여성들이 이혼 및 결혼중개업소에 대한 피해보상, 인권피해 등의 소송을 할 경우에 형사적, 민사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3) 안병호, “결혼이주여성의 가정 내 폭력문제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연구”(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2006), 112.

44) 백승흠, “가정폭력 관련법률에 관한 고찰”,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제10권 4호(2004): 97-99.

5.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예방과 기독교상담

현재 한국의 다문화 가정의 종교적 현황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통계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한영현의 『전남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복지실태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통계조사를 참고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종교현황을 살펴보면, 통일교가 3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무교 29.3%, 가톨릭 16.3%, 개신교 7.4%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 남편의 경우, 무교가 4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통일교 28.5%, 불교 11.0%, 개신교 6.5%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급증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이주결혼여성들의 종교분포를 보면 중국은 무교가 65.5%, 필리핀의 경우 가톨릭이 40.0%, 베트남은 불교 38.1%, 무교 34.7%의 순으로 나타났다.⁴⁵⁾ 비록 여기 제시한 통계치가 전국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종교적 통계수치를 고려할 때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기독교 선교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를 위시해서 모든 기독교기관들이 다문화가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선교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독교상담 역시 다문화 가정들이 성경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어야 하며, 특히 결혼생활을 가장 위협하는 가정폭력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상담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 대처 및 예방과 관련해서 기독교상담 방안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주결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기독교 다문화상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여성의 수가 증가와 함께 다문화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다문화상담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독교상담 역시 이에 관심을 가지고 이주결혼여성들의 한국사회적응을 도와서 다문화가정들이 한국사회에서 믿음의 가정

45) 한영현,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실태 및 문제점”,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복지실태조사 보고회 자료집』 (경남: 신창문화사, 2006), 13.

으로 올바르게 설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다문화상담에서 강조하는 문화는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사는 주민들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며, 축복이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유산으로 어떤 나라와 어느 지역의 문화도 존중받아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상담자가 이주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 첫째, 상담자는 인종과 종교, 신념, 사회적 배경 및 태도에 있어서 엄연히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둘째, 상담자는 자신의 문화적인 관점에 민감해야 하며, 또한 내담자 문화의 특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상담자는 내담자의 세계관을 함께 나누고 이해, 수용해야 한다. 넷째, 상담의 목표와 과정 역시 내담자의 문화와 종교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설정해야 한다.⁴⁶⁾

또한 일반상담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상담도 다문화 상담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는 첫째, 언어장벽이고 둘째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편견과 불안이 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문화적으로 타당한 대화기술을 이해하고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더 나아가 '문화적으로 자기 세계에 갇힌 상담자'가 되지 않도록 융통성을 가지고 내담자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2)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대처와 기독교상담

사례: 결혼중매업소를 통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21세의 결혼 이민여성인 A씨는 남편이 비교적 풍채가 좋은 편이었고 중개인도 시골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 집이기 때문에 생활에는 걱정이 없으며, 베트남의 친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남편의 나이가 39세로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한 후에야 남편이 알코올중독의 증세가 있으며, 시어머니와 함께

46) 강경미, 『예수님의 치유사역과 21C 총체적 치유선교전략』 (서울: 동문사, 2011), 221-222.

남의 눈을 부치면서 집안형편도 매우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같이 열심히 농사일을 하면서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결혼 한 그 다음해에 아들도 낳게 되었다. 하지만 남편의 음주는 계속되었고 주사로 인해 주위사람들과 싸움도 잦았고 이로 인해 이웃들과의 관계도 안 좋게 되었다. 남편은 이러한 상황을 A씨가 말을 못하고 이웃들과 어울리지 못해서라고 불평하고 A씨를 향해 화풀이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부간의 다툼과 함께 서서히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처음에는 말리던 시어머니도 남편의 편을 들게 되었으며, 손자를 안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상황이 되었다. 폭력은 상습적으로 자행되었고 심지어 문을 걸고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였다. 근처 이웃사람의 도움으로 사회복지기관에 신고하였으나 남편은 A씨가 손버릇이 나빠서 그것을 고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절대로 때리지 않겠다고 해서 다시 돌아왔으나 폭력은 계속되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A씨는 현재 집을 나와 다른 지역의 베트남 친구의 집에서 숨어있는 상황이다.

결혼이주 여성들의 대다수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언어소통의 문제로 인해 집안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집을 나와도 적당한 피신처를 찾을 수 없는 실정으로 가정폭력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폭력을 피해 가출한 이주여성들 중에는 남편과 가족들로부터 거부당하거나 버려진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해서는 치료와 교정보다는 사회적인 보호시설과 생계마련 대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주선하고 조력할 수 있는 기독교 상담자의 노력이 요구된다.

(1) 기독교 쉼터의 개설과 확장

폭력피해 이주 여성들에 대한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가출청소년들과 같이 일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쉼터의 기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홍보와 비용, 인력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재 실행하고 있는 전문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쉼터제도와 시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⁴⁷⁾ 이와 함께 지역사회 교회나 기관들도 이들을 위한 기독교쉼터를 마련하고 위급 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의 연령이 비교적 어린편이고 심지어 십대들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이 가출초기에 쉼터나 보호시설에서 보호받지 못할 경우 생계를 위해 위태환 경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설립 및 생계유지를 위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정폭력상담기관에 기독교상담 전문 인력 배치

폭력피해로 신체적·심리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이주여성들에게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으로 가장 요구되는 것은 그들을 무조건 수용하고 고통과 처지를 공감할 수 있는 상담이다. 그리고 종교적 관념이 형성되어 있는 내담자의 경우에는 기독교상담의 접근도 가능하다 또한 가정폭력의 문제로 이성과 전망을 상실한 이주여성들을 상담할 때에는 그의 육체와 정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상담에 기독교 상담이 접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기관에 기독교상담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먼저 내담자의 위기상황을 점검하고 그들의 정서 및 행동 상태를 이해하는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기독교상담자는 가정폭력의 전문상담자로서 결혼이주여성들의 부부와 가족 간의 갈등과 폭력문제를 해결해서 이들이 마음에 문을 열고 가족들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기독교상담

오늘날 가정폭력과 가정파괴, 이혼, 자살 등 인간성 위주의 사회문제가 증가하면서 기독교상담은 인간생활에 절실히 요구되는 사역으로 인정받고

47) 송병호, “결혼이주여성의 가정 내 폭력문제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행정대학원, 2008), 88.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문제로 심신의 상처와 함께 실의에 빠져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상담자와의 실존적 만남을 통해 자신의 과거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상담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성경에서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원리로 ‘성숙한 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결혼은 인간의 편리를 위해 또는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역사가 세상에 구현되고 창조의 법칙이 지배하는 기본제도인 것이다.⁴⁸⁾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개별적으로 창조하시면서 각기 다른 가치관 및 성향을 주셨고, 이와 함께 개인들이 속해 있는 사회와 문화역시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긍정적인 모습과 가치를 수용하고 함께 나눌 때 진정한 관계는 형성된다고 하였다.⁴⁹⁾ 따라서 기독교상담자는 오직 경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인 남편을 따라 무조건 입국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성경적으로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교육하고 또한 상담을 통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정폭력을 위시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신앙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더 나아가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에 기독교신앙을 확립하고, 부부와 가족에 대한 치유와 함께 다문화가정들이 이웃과 신앙공동체 형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담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 다문화가정의 기독교신앙 확립을 위한 기독교상담

기독교상담의 근본목적은 내담자로 하여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살아왔던 내담자가 본인의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

48) 서강훈, “현대교회와 가정사역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총신대신학대학원, 2003), 17

49) 박은혜, “기독교상담이 가정생활의 회복과 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총신대선교대학원, 2002), 22-23.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문화상담에서 기독교상담자는 결혼 이주여성들에게 상담을 통해 성경에 있는 일상생활의 지혜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다문화가정에 기독교신앙이 확립 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또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배움과 훈련의 장소로 말씀 안에서 서로 노력해야만 가족적으로 화목하고 성숙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독교상담자는 가족들이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해서 낮은 자존감에 의해 형성되는 역기능적인 가정이 되지 않도록 부부를 포함해서 온 가족들이 기독교 신앙훈련과 함께 상담으로 회복되어서 기쁨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독교상담자 및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2)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기독교치유상담

기독교상담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치유의 사역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는 가정폭력의 문제로 심신이 피폐해진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해서 가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상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 치유상담은 먼저 폭력가해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개를 통해 인격이 변화되어서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전적으로 조력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기독교상담자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역기능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가정에 기독교치유상담을 통해 부부와 가족 간의 다양한 문제들을 치유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믿음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 성장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해서 한국에서 자신이 목적했던 삶을 성취하고 자아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⁵⁰⁾

50) 김수연, “은혜의 심리학: 거듭난 심령의 성장 질서”, 『복음과 상담』 제12권(2009): 222.

(3)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기독교공동체 형성 및 기독교집단상담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기독교상담의 전략으로 이웃과의 공동체 형성 및 교제를 위한 집단상담은 이주여성들이 폭력가정에서 피신해서 심신의 안정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와 사랑으로 서로 덕을 세우고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바울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서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선을 이룸과 동시에 한 마음으로 동행하며, 연합하여(시 133:1)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모임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들이 모여서 기독교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조력해서 가정적으로 빈곤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는 가정폭력의 피해로 피신할 곳이 없을 때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독교 집단상담을 실시해서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의 아픔이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섬김과 기도, 사랑으로 형성되는 믿음의 공동체는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의 가정들도 지킬 수 있게 되면서 지역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게 된다.⁵¹⁾

III. 닫는 글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정은 결혼의 목적과 진행과정이 특수하고, 또한 이와 함께 발생하는 문제 역시 복잡하고 심각해서 개인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내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문제는 피해자

51) Kyle D. Killian, "Dominant and Marginalized Discourses in Interracial Couples Narratives: Implications for Family Therapists," *Family Process* 41, no. 4 (2002): 603.

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가정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관념으로 가정폭력에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배제해서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특히 자체적 해결능력이 없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폭력가정 내에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적 보호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모든 기관들이 협력하여 폭력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종교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전략으로 기독교 상담을 적용하고 다양한 방안들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로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또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상담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지 만 현재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용이나 실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와 함께 결혼이주여성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경미, 『예수님의 치유사역과 21C 총체적 치유선교전략』, 서울: 동문사, 2011.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지원 대책』,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06.
- 김범수 외, 『다문화사회복지론』, 경기: 양서원, 2007.
- 김병준,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아내구타와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 학원, 2000.
- 김오남, “결혼이민여성과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개입”. 한국사회복지학회, 「사회복지」 제175호(2007): 22-34.
- 김수을, “가정폭력실태와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2006.
- 김윤희, “가정폭력범죄의 효과적인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청, 「경찰대학교위정책과정논문집」 제 12호(2002): 1015-1027.
- 김윤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 교대학원, 2003.
- 김혜순, “결혼이주 여성과 한국의 다문화 사회실험 -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42집 2호(2008): 36-49.
- 김희숙,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 실증연구”. 박사학위논문, 군 산대학교사법행정대학원, 2010.
- 박은혜, “기독교상담이 가정생활의 회복과 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선교대학원, 2002.
- 박정화, “한국의 다인종 사회 진입에 따른 정치적 함의: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대학원, 2008.
- 변화순 외,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 국여성정책연구원 수시과제연구보고서, 2008.
- 백승흠,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관한 고찰”.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제10권 4호(2004): 95-108.
- 서강훈, “현대교회와 가정사역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신학대학원, 2003.
- 송병호, “결혼이주여성의 가정 내 폭력문제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석사학

- 위논문, 원광대학교행정 대학원, 2008.
- 안경식.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학지사, 2008.
- 안병호. “결혼이주여성의 가정 내 폭력문제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6.
- 여성가족부. 『2007년 가정이혼실태조사』. 서울: 보건사회연구원, 2008.
- 여성가족부. 『2007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서울: 보건사회연구원, 2008.
- 이명자. “다문화가정 부부갈등 요인과 대책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인문정보대학원, 2009.
- 이수정 외. “다문화사회의 이주여성에 관한 연구: 범죄피해에 대한 취약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32호(2008): 227-41.
- 이은정. “가정폭력피해여성의 거취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2006.
- 이인경. “상담사례를 통해 본 이주여성의 삶”. 신라대학교여성문제연구소. 『여성연구』 제18호(2007), 3-17
- 임경혜.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 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2004.
- 장명선 · 이옥경.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8.
- 장명선 외. 『폭력피해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 서울: 서울시여성가족 재단, 2009.
- 정현미. “결혼이민여성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화여자대학교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창간호(2010): 78-90.
- 최유진. “한국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교육대학 원, 2007.
- 한영현.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실태 및 문제점”.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복지실태 조사 보고회 자료집』. 경남: 신창문화사, 2006.
- Killian, Kyle D. “Dominant and Marginalized Discourses in Interracial Couples Narratives: Implications for Family Therapists.” *Family Process* 41, no.4 (2002): 601-611.
- Mehrotra, M. “The Social Construction of Wife Abuse: Experience of Asian

Indian Women in the United State.” *Violence Against Women* 7, no. 2 (2001): 611-638.

Sherman, A. “Healing the Wounds If Domestic Violence: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Feminist Therapeutic Interventions with Immigrant and Racially Visible Women who have been Abused.” *Violence Against Women* 7, no. 4 (2001): 1403-1419.

Sussman, Marvin B. & Steinmetz, Suzanne K.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Englewood Prentice-Hall, 1987).

Goode, W. J. “Force and Violence in the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1971): 99-117.

【 Abstract 】

Prevention of Multicultural Family's Domestic Violence and Christian Counseling

Kyung-Mi Kang

Korea Christian University

In our society today, the nu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rapidly increasing as well as the numbers of incidents of domestic violence. Based on a Women Family Council's research on domestic violence, multicultural families showed the violent incidence rate of 47.7% while Korean families recorded that of 40.3%. That is, the violence in the multicultural families is 7.4% higher rate than that in Korean families. Especially, abuse from spouses occurred 3.5 times more in multicultural families than Korean families. As shown on the research, wives who immigrated to Korea are experiencing a roller-coast ride in their marriage. In addition, some have already gone through divorce and become labeled as illegal immigrants, who are in jeopardy of their lives. Therefore, a plan to support, protect, and prevent the situation is crucial. Not only the government should be aware of this, but also local churches and other Christian officials should work together in an effort to prevent the situation. We need to start counting on client-centered Christian counseling for multicultural families so that they can acknowledge God's presence in their everyday-life basis. This research suggested a specific measure for how a Christian counseling can be applied to help the hurt wives and can spark their faith. Looking forward, we need to produce more of qualified Christian counselor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continue to conduct in-depth studies.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y, domestic violence, married women immigrants to Korea, prevention, Christian counseling